

전남태권도 '역시 강자' 맹위

전남태권도가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두각을 맹위를 떨쳤다.

특히 '전남체육중학교 남매'는 부별 종합우승을 각각 차지하면서 전남태권도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같은 전남의 뒷심은 대한태권도협회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상임부회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74)의 '노익장' 활동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태권도는 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 7일째 남자고등부 -87kg급에서 이학성(순천공고 3년)이 체급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학성은 선천적인 농아선수(귀가 안들림)의 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에 등극,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학성은 체급 우승으로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까지 안았다. 이학성의 활약으로 순천공고는 남자고등부 단체전 장려상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회장기대회 전남체육중 남매 농아선수 이학성 우승 조영기 회장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 마케팅' 앞장

배상찬(광양고)도 남자고등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학교 남매'의 종합우승은 전남태권도의 위세를 떨치는데 '백미'였다.

전남체육중 남자부는 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정다정(플라이급)과 라이트웰터급 신동훈이 금메달을, 라이트급 임운이 3위를 각각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 2, 동 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창희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전남체육중학교 여자중등부 역시 우수선수상에 등극한 임금별(라이트웰터급)을 비롯하여 헤비급 최예진이 1위를, 밴텀급 김도형과 라이트급 공나영이 2위를, 웰터급 송현주와 라이트미들급 김서지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 2, 은 2, 동 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관용 감독도 지도상 주인공에 올랐다.

이와같이 전남태권도가 맹위

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협회의 대외적 역량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조영기 회장을 비롯한 전남태권도협회는 전국규모대회 유치에서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영기 회장은 올해에도 우리도에 6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유치, 그 위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 3월 중별태권도대회(해남·8일간·2,500여명 참가), 4월 춘계대학연맹전(영광·8일간·2,200여명 참가), 5월 대통령기대회(해남·7일간·1,500여명 참가), 6월 여성부장관기여자초등학교대회(강진·5일간·1,000여명 참가)에 이어 이번 협회장기대회(7일간·2,000여명 참가)마저 화순에 유치시켰다. 7월에는 중등부종합선수권대회(해남·7일간·1,800여명 참가)를 성사시켜 놓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4개, 2011년 3개 유치에 비해 대폭 확대된 대회로 평생을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벗삼아 체육과 함께 해온 조영기 회장의 대한태권도협회 내에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증거다.

특히, 조 회장은 각종 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 사랑 및 봉사라는 인식을 갖고 대회 유치에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조 회장은 전남도에 많은 태권도대회 유치하는 것만이 우수선수 발굴 등 지역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 유치 희망 시·군과 협력하여 대회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13년 2월까지 상임부회장 임기를 맡고 있는 조 회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 성사시키겠다"며 "태권도를 통한 나의 지역 봉사는 끝이 없다"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최기휴 기자

전남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서 맹위

전남체육중 남매, 부별 종합우승 발차기 조영기 회장, 전국규모 대회 유치 앞장

전남태권도가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두각을 발휘했다.

특히 '전남체육중학교 남매'는 부별 종합우승을 각각 차지하면서 전남태권도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같은 전남의 뒷심은 대한태권도협회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상임부회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74)의 '노익장'이 주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남태권도는 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 7일째 남자고등부 -87kg급에서 이학성(순천공고 3년)이 체급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학성은 선천적인 농아선수(귀가 안들림)의 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에 등극,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학성은 체급 우승으로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까지 안았다.

이학성의 활약으로 순천공고는 남자고등부 단체전 장려상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배상찬(광양고)도 남자고등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학교 남매'의 종합우승은 전남태권도의 위세를 떨치는데 '백미'였다.

먼저 전남체육중 남자부는 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정다정(플라이급)과 라이트웰터급 신동훈이 금메달을, 라이트급 임운이 3위를 각각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 2, 동 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창희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전남체육중학교 여자중등부 역

시 우수선수상에 등극한 임금별(라이트웰터급)을 비롯하여 헤비급 최예진이 1위를, 밴텀급 김도형과 라이트급 공나영이 2위를, 웰터급 송현주와 라이트미들급 김서지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 2, 은 2, 동 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관용 감독도 지도상 주인공에 올랐다.

이와 같이 전남태권도가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협회의 대외적 역량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조영기 회장을 비롯한 전남태권도협회는 전국규모대회 유치에서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영기 회장은 올해에도 전남도에 6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유치했다.

지난 3월 중별태권도대회(해남·8일간·2천500여명 참가), 4월 춘계대학연맹전(영광·8일간·2천200여명 참가), 5월 대통령기대회(해남·7일간·1천500여명 참가), 6월 여성부장관기여자초등학교대회(강진·5일간·1천여명 참가)에 이어 이번 협회장기대회(7일간·2천여명 참가)마저 화순에 유치시켰다.

7월에는 중등부종합선수권대회(해남·7일간·1천800여명 참가)를 성사시켜 놓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4개, 2011년 3개 유치에 비해 대폭 확대된 대회로 평생을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벗삼아 체육과 함께 해온 조영기 회장의 대한태권도협회내에서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다.

보통 전국대회로 치러지는 공식 10개 대회 중 무려 6개 대회를 전남도에 유치한 것.

이같은 대회 개최 성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특산물 홍보 등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스포츠가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김병오 기자

무등일보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

전남체육중 남매 동반 종합우승

전남 태권도팀이 화순에서 열린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전남체육중학교 남매'는 부문별 종합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이학성(순천공고 3년)은 3일 화

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 7일째 남자고등부 -87kg급에서 체급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학성은 선천적인 농아선수(귀가 안들림)의 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에 등극,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학성은 이번 체급 우승으로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도 획득했다.

이학성의 활약으로 순천공고는 남자고등부 단체전 장려상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상찬(광양고)도 남자고등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전남체육중 남자부는 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정다정(플라

이급)과 라이트웰터급 신동훈이 금메달을, 라이트급 임운이 3위를 각각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 2, 동 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창희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전남체육중 여자중등부도 우수선수상에 등극한 임금별(라이트웰터급)을 비롯하여 헤비급 최예진이 1위를, 밴텀급 김도형과 라이트급 공나영이 2위를, 웰터급 송현주와 라이트미들급 김서지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 2, 은 2, 동 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최민석기자

광주·전남 태권도 '최강 발차기'

협회장기 대회서 전남체육중 우승·광주체육고 준우승

광주·전남 태권도가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최강 발차기를 선보였다.

전남체육중은 남녀부 종합 우승의 기염을 토했고 광주체육고는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은 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에서

남자부 금 2·동메달 1개, 여중부 금 2·은 2·동메달 2개를 따며 남녀부 종합우승을 휩쓸었다.

남자부에서는 정다정(플라이급)과 신동훈(라이트웰터급)이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고 임운(라이트급)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도 임금별(라이트웰터급)

과 최예진(헤비급)이 정상에 올랐고 김도형(밴텀급)·공나영(라이트급)이 각각 은메달, 송현주(웰터급)·김서지(라이트미들급)가 각각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고는 금 2·동메달 1개로 남고부 단체 종합 2위에 올랐다.

광주체육고는 풍생고와 메달수가 같았지만 많은 선수가 출전한 체급 우승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규정에 따라 아쉽게 종합 우승을 놓쳤다.

광주체육고 박규성(3년)은 -80kg급 결승에서 행운의 기권승으로 우승했고 남고부 최우선수(MVP)

까지 선정됐다.

이밖에 첨단고는 남고부에서 금메달 1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순천공고 이학성(3년)은 남고부 -8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며 팀의 남고부 단체 장려상을 이끌었다. 이학성은 내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한다.

광양고 배상찬은 남고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산구청은 여자일반부에서 이은미가 -49kg급에서 금메달, 김지혜가 -67kg급에서 동메달을 따. 정소연 기자 sypassion@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남고부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왼쪽부터 손준홍, 박규성, 박영준.

전남체육중 남녀부 종합우승 · 광주체고 남고부 준우승

협회장기 단체대항태권도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전남체육중이 남·여 중부 단체종합우승을, 광주체고가 남고부 단체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은 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에서 정다정(플라이급)과 신동훈(라이트웰터급)이 금메달을, 임운(라이트급)이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2 동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여중부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임금별(라이트웰터급)과 최예진(헤비급)이 금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김도

형(밴텀급)과 공나영(라이트급)이 은메달, 그리고 송현주(웰터급)와 김서지(라이트미들급)가 각각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금2 은2 동2개를 기록했다.

정다정과 임금별은 각각 남녀중부 우수선수로 선정됐으며 이창희 코치와 이관용 감독은 지도상을 수상했다.

광주체고는 박규성(3년)이 80kg이하급 결승에서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박영준(3년)도 68kg이하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금2 동1개로 풍생고(금2, 동1)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

으며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첨단고는 단체종합 3위를 차지했다.

박규성은 남고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한편, 순천공고 이학성(3년)은 87kg이하급에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학성은 선천적으로 귀가 안들리는 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에 등극,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학성은 체급 우승으로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순천공고는 이학성의 활약으로 남고부 단체전 장려상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

광주·전남 태권도가 전국대회를 호령했다.

3일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교장 권오강) 태권도(감독 김광모)가 지난 1일 중등부에서 남녀동반 종합우승을 거뒀다.

전남체육중 태권도는 전국소년체전 사상 한 학교 4개의 금메달 획득에 이어 남자중등부(이하 남중부) 금메

호남매일

‘전남체육중 태권 남매’ 전국대회서 맹위

협회장기단체대항전서 남녀중학부 종합우승

전남태권도가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3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맹위를 떨쳤다.

특히 ‘전남체육중학교 남매’는 부별 종합우승을 각각 차지하면서 전남태권도의 명예를 드높였다.

전남태권도는 3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끝난 대회 7일째 남자고등부 -87kg급에서 이학성(순천공고 3)이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학성은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에 올라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학성은 체급 우승으로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까지 안았다.

영광까지 안았다.

이학성의 활약으로 순천공고는 남자고등부 단체전 장려상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배상찬(광양고)도 남자고등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학교 남매’의 종합우승은 전남태권도의 위세를 떨치는데 ‘백미’였다.

먼저 전남체육중 남자부는 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은 정다정(플라이급)과 라이트웰터급 신동훈이 금메달을, 라이트급 임운이 3위를 각각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2, 동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창희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전남체육중학교 여자중등부 역

시 우수선수상에 등극한 임금별(라이트웰터급)을 비롯해 헤비급 최예진이 1위를, 밴텀급 김도형과 라이트급 공나영이 2위를, 웰터급 송현주와 라이트미들급 김서지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2, 은2, 동2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관용 감독도 지도상 주인공에 올랐다.

이와같이 전남태권도가 전국대회에서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협회의 대외적 역량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남태권도협회는 전국규모대회 유치에서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

동하고 있는 조영기 회장은 올해에도 전남에 6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유치, 그 위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 3월 중별태권도대회, 4월 춘계대학연맹전, 5월 대통령기대회, 6월 여성부장관기여자초등학교대회에 이어 이번 협회장기대회마저 화순에 유치시켰다. 이번달에는 중등부중별선수권대회를 성사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는 조영기 회장의 ‘지역 사랑’과 ‘태권도 열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상임부회장 중책을 임기를 수행하는 조영기 회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 성사시키겠다”며 “태권도를 통한 나의 지역 봉사는 끝이 없다”고 열정을 불태웠다.

/박정렬 기자

전남 태권도 전국대회서 ‘맹위’

전남체육중 남녀 종합우승 이어 광주체고 남자부 준우승

달 2개, 동메달 1개로 여자중등부(이하 여중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각각 우승해 최강자로 우뚝 섰다.

이어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영록) 태권도(감독 최연식)가 3일 남자고등부(이하 남고부)에서 종합 준우승했다.

광주체고 남고부 태권도는 손준홍이 2일 -74kg급에서 첫 금 소식을 알려왔고 3일 박규성이 -80kg급에서 금메달을 박영준이 -68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고는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풍생고와 금메달 2개, 동메

달 1개로 같았지만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68kg급을 풍생고에 내줘 아쉽게 준우승했다. 또한 광주첨단고는 금메달 1개로 종합 3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도 광주·전남이 휩쓸었다.

남중부 최우수선수상에 전남체육중 정다정이 뽑혔고 여중부 최우수선수상에는 전남체육중 임금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고부에는 준결승까지 10점차 이상으로 월등한 기량을 보여준 광주체고의 박규성이 차지했다.

인간승리도 있었다.

3일 남고부 -87kg급에서 귀가 안들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학성(순천공고 3년)이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

‘인간승리 드라마’를 연출한 이학성은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3년 세계장애인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까지 안았다.

이학성의 활약으로 순천공고는 남고부 단체전 장려상을 안는 기쁨을 누렸다.

전남체육중 남녀부 석권 등 전남의 힘은 대한태권도협회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74)의 ‘노익장’ 활동이 주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먼저 조영기 회장을 비롯한 전남태권도협회는 전국규모대회 유치에서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회장은 올해에도 전남도에 6개의 전국규모 태권도대회를 유치, 위력을 뽐내고 있다.

2013년 2월까지 상임부회장 중책을 임기를 수행하는 조영기 회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 성사시키겠다”며 “태권도를 통한 나의 지역 봉사는 끝이 없다”고 열정을 불태웠다.

/신광호 기자 shg@namdodnews.com